

여고생의 약품사용과 심리적 특성

전숙자 · 박영수*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Psychological Factors of High School Girl Students on Drug Use

Jeon, suk - za · Park, Young - Soo*

Graduate school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Professor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Abstract

This study was designed to figure out current situation of use of non prescription drugs and psychological factors of high school girl students on drug use, and conducted from Nov. 1 through Nov. 20, 1998. 536 girl students were randomly selected for this study. Symptom Check list - 90 - Revision questionnaires used for interview. The data obtained were analyzed by SAS program.

The results are as follows :

1. 94.8% of students had experiences of using more than one kind of drug; lenitive(57.8%), digestant(74.1%), remedy for colds(84.9%), antibiotic(9.3%), stimulant(3.2%) remedy for constipation(22.4%).
2. Students had experiences of using non prescription drug, lenitive(88.1%), digestant(91.7%), remedy for colds(57.4%), antibiotic(58.0%), stimulant(88.2%) remedy for constipation(88.3%)
3. 19.4% of students had experiences using drugs more than one time a week and 23.5% of students experienced tolerance, prescription group(11.1%) and non prescription group (88.9%) and 21.4% of students were keeping some medicine who experienced tolerance.
4. The scores of Symptom Check list - 90 - Revision of students' were higher than Kim's standard group and the psychological states were worse than Kim's standard group.
5.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groups(no use of drug, use of less than three kinds of drugs, use of more than three kinds of drugs) in Symptom Dimension without Paranoid Ideation and Phobic Anxiety and between using group and non using group of drug in Psychological factors on Drug use by lenitive, antibiotic, and stimulant.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들의 약물 오·남용에 대한 사회문제 제기는 이미 오래 전에 대두되어 왔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한 각계 각층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약물 사용에 대한 피해나 그 후유증은 이미 도를 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약물 오·남용 예방이나 관리를 위한 교육은 부족한 현실이며 실태 파악을 위한 연구에만 그칠뿐 그 원인규명을 위한 연구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다.

1999년부터 의약분업이 실시된다고 했다가 유보되고 있다. 그 의약분업에 대한 논의가 여기저기서 끊이지 않고 있는데 너무나 쉽게 약을 접할 수 있는 현실 때문에 그러한 정책이 필요하다면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비처방으로 구입하여 복용하는 일반 의약품에 대한 건강의 위험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비처방 의약품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는 몇 편에 불과하며 비처방 의약품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에 대한 피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약물에 쉽게 접할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들의 일반 의약품 사용에 대해서 다양한 실태파악과 원인규명이 필요하다.

약물은 인체의 자연치유능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므로 적절한 약물을 선택하여 올바른 방법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는 질병의 치유 및 예방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어떠한 약물 이든 간에 치료작용 외에 여러 부작용이 부수적으로 나타나게 되며 대량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독작용이 나타나서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초래하게 된다.

더욱이 특정한 질환의 치료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약물을 잘못 오용하거나 함부로 남용하는 경우에는 내성균의 출현, 인체면역능력의 저하 및 약물의존증의 증가 등으로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을 저해시키게 된다(이정상, 1981).

특히, 우리 나라는 약물의 광고나 선전이 TV, 신문, 잡지 등의 대중매체를 통해 자유롭게 행하

여지고 있어서 청소년들이 약물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를 대중매체를 통해 쉽게 얻을 수 있으나 (한정석, 1985), 약물광고에는 약물부작용 시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이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약물에 대한 올바르지 못한 지식이나 과신을 가지게 되며 또한 스스로 약국에서 약물을 선택, 구매하여 복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약물 오용과 남용의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약물의 작용과 적응증, 투여방법 및 부작용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약물을 선택하는 것은 질병의 치유 및 건강증진을 위한 약물복용시에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조연숙(1989), 박중규(1988), 박영숙(1991), 권인숙(1991), 최순영(1996)의 모든 연구에서 청소년들의 진통제, 소화제, 각성제, 감기약, 항생제 등의 약물 오·남용에 대한 우려를 지적하고 있으며 오국진(1994)의 약국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두통약, 소화제, 감기약, 해열제 등의 의존도를 지적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원(1988)의 자료를 보면 청소년기는 신체 및 정신발달이 급격히 이루어지고 다양한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정서적, 심리적 변화의 기복이 심해진다. 이러한 변화만으로도 당혹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입시라는 문제로 공부만을 강요받는 환경하에 있어 더욱 불안감이 가중되어 심리적, 육체적, 정서적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또는 호기심에 의하여 약물을 스스로 쉽게 선택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박중규(1988), 이길홍(1976, 1979, 1984, 1987), 유방현(1981), 조연숙(1989), 김광일, 원호택(1983), 남중락(1995), 정승아(1993), 이재창(1981), 김성이(1989)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심리적 갈등 및 문제와 약물사용과의 관련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청소년기의 특성을 고려해볼 때 약물사용의 지침이 되는 보건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나 현행 초, 중, 고등학교의 교과과정은 알콜, 담배, 각성제의 작용, 부작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보편적으로 오용, 남용하고 있는 상용약, 일반

매약에 대한 교육내용은 없는 실정이며 이러한 교육마저도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또한 본 연구자가 근무하는 인문계 여자고등학교 학생의 보건실 이용 실태를 보면 소화기 문제로 약을 복용하는 학생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호흡기계로 감기약을 복용하는 경우이다. 이들 학생들은 심리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소화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시험전이나 시험중일 때 소화제나 두통약 복용이 많은 것으로 알 수 있었다. 학생들은 공부를 하기 위하여 필요이상으로 약을 사용한다든지, 자신의 약물남용에 대해 깨닫지 못하고 약을 사용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심리적 스트레스가 증상호소 및 약사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약품 사용 실태와 심리적 특성을 조사하고 인문계 여고생의 심리적 특성과 약품 사용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약품 사용에 대한 보건교육 및 약품관리에 대한 자료와 지침을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여고생의 약품사용실태를 파악하여 학생들이 쉽게 접하는 약품은 무엇이 있으며 여고생의 심리적 특성, 약품과 심리적 특성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여고생의 약품사용이 심리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 그 실태 파악과 함께 보건교육의 기초자료제공, 사회에 문제를 제기하는 기초자료로 삼고자 하는데 도움이 되 고자 계획되었다.

3. 연구의 문제

- 1) 여고생의 일반 약품 사용 실태는 어떠한가?
- 2) 여고생의 일반 약품 사용과 심리적 특성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연구자가 근무하고 있는 강

원도 춘천시내 C여자고등학교의 1, 2, 3학년 학생중 임의로 한 학년에 5개 학급씩을 선정하여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강원도 춘천시내 인문계 여자고등학교 학생들에게 6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580부를 회수하였으며 그 중 불성실한 응답을 보인 44부를 제외하고 536부를 분석하였다.

학년별 구성은 1학년 191명(35.6%), 2학년 192명(36.0%), 3학년 153명(28.5%)으로 모두 536명이다.

2. 연구 방법

1) 연구도구

본 연구의 약품 사용실태 조사를 위한 도구는 기존의 약물 사용 실태에 대한 논문을 참고로 연구자가 제작하였으며 설문 내용은 모두 7문항으로서 기초질문 1문항, 일반적인 약품 사용에 대한 질문 문항 2문항, 약품 사용정도에 대한 질문 2문항, 약에 대한 내성에 대한 질문 1문항, 신경성 질환 이환에 대한 질문 1문항으로 구성 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심리적 특성, 심리적 부적응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용한 도구는 간이정신진단검사인데 정신 진단 검사는 Derogatis 등(1973)이 Hopkins Symptom Check list (HSCL)를 발전시켜 만든 90문항의 Symptom Check list(SCL-90-L)를 김광일과 원호택이 우리 실정에 맞게 간이정신진단검사(SCL-90-R)를 제작하였고 이훈구(1986)가 1986년도 Y대학 신입생 전체를 대상으로 이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이를 요인분석하여 47개 문항으로 축소제작한 것을 이용하였다. 이 검사는 47개의 문항이 증상차원으로 채점되며 1개의 문항은 두 증상차원으로 채점된다. 반응은 각 문항별로 0점(전혀 없다)에서 4점(아주 심하다)차원으로 자신의 증상을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신체화, 강박증, 대인예민성, 우울증, 불안, 적대감, 공포불안, 편집증, 정신증 등의 9가지 증상차원을 평가하여 전체심도지수(GSI-각 문항에서 1점 이상에 평정한 점수의

합계를 총 문항수로 나눈 점수로 현재의 장애의 수준 혹은 심도를 나타낸다)으로써 개인의 일반적인 심리적 고통(psychological distress)의 정도를 알아볼 수 있게 되어 있다.

각 증상차원의 특성은 다음과 같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질문서의 47개 문항에 대한 신뢰도 계수는 0.95였다.

① 강박증 척도(obsessive-compulsive) : 이 척도의 문항은 강박신경증의 증상을 들어내는 것으로 환자가 하지 않으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떤 생각이나 충동 및 행동을 반복하여 경험하게 되는 상태를 재도록 되어 있으며 문항수는 5개이다.

② 신체화 척도(somatization) : 신체화 척도는 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체적 괴로움을 표현한 것으로 주로 심장호흡, 소화기능의 장애 및 두통 등 자율신경계의 영향하에 있는 기관의 장애를 나타낸다.

③ 불안 척도(anxiety) : 이 척도는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긴장, 초조, 신경과민 등 입장에서 보는 불안신경증의 주 증세를 포함한다.

④ 대인예민성 척도(interpersonal sensitivity) : 대인예민성 척도는 대인관계에서 자격지심과 열등의식, 부적절감 등을 드러내는 것으로 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⑤ 우울증 척도(depression) : 이 척도는 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분이나 감정이 저조되어 있고 매사에 흥미를 잃어버리고 의욕이 없어지고 희망을 잃은 상태를 나타낸 것으로 한마디로 임상적으로 볼 때 우울증 환자의 특성을 표현하고 있다.

⑥ 적대감 척도(hostility) : 정신과 외래 환자들이 일반적으로 정신과적 진단이나 치료에 대하여 분노나 적대감을 드러내는데 적대감 척도는 바로 이런 감정, 생각 및 행동을 재려는 것으로 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⑦ 공포 불안 척도(phobic anxiety) : 이 척도는 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로 사회적 상황에서의 불안, 공포와 넓은 장소에 대한 공포를 재려는 것이다.

⑧ 편집증 척도(paranoid ideation) : 이 척도는 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편집증적 사고를 재려는 것으로 주로 투사적 사고, 적대감, 의혹적인 경향 및 망상 등을 포함한다.

⑨ 정신증 척도(psychotism) : 이 척도는 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벼운 정신증적 증상으로 부터 정신분열증의 증상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넓은 영역의 정신증 증상을 포함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일반적으로 매약이 되는 진통제, 소화제, 감기약, 항생제, 변비약, 각성제의 6종류의 의약품에 대상으로 그 사용유무, 사용정도, 약품내성, 처방·비처방에 따른 약품 사용 실태와 심리적 상태, 약품별, 약품 사용별, 약품 사용정도별 간이정신진단검사 점수로 약품에 따른 심리적 특성을 살펴보고 비교 분석하였다.

3. 자료 처리 방법

자료 분석은 SAS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 1) 약품 사용 실태에 대해서는 백분율을 계산하였다.
- 2) 학년에 따른 비교는 χ^2 검증, 간이정신진단 검사결과의 비교 및 약품 사용자와 미사용자의 비교는 t-test 검증과 F검증을 실시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여고생의 약품 사용 실태

약품 사용량에 따른 약품 사용실태를 살펴보면 전체 536명의 조사대상자중 미사용자는 28명(5.2%), 3종류 미만 사용자는 228명(42.5%), 3종류 이상 사용자는 280명(52.2%)으로 나타났다. 3종류 이상 약품 사용자는 여고 3학년 56.2%, 2학년 53.1%, 1학년 48.2%로 차이검증에서 유의미한 차는 없었지만 3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최순영(1996)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생들의 약에 대한 의존

이 생겨 사용이 증가되거나 입시를 위한 심리적 압박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6종류의 약품중 1종류의 약품이라도 사용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508명(94.8%)로 나타나서 학생들의 대부분이 1998. 3. 1~1998. 10. 31까지 8개월동안 약품중 1종류이상의 약품에 대해 사용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약사용 경험이 없는 학생이 5.2%에 불과한 것으로 너무나 쉽게 약에 접하는 청소년의 약사용을 말해주고 있으며 이는 습관성, 의존성과 연결되어 청소년기의 약 오·남용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학년별 사용 약품별 처방 비율은 표 1과 같다.

조사대상자 536명중 진통제는 57.8%(310명), 소화제 74.1%(397명), 감기약 84.9% (455명), 항생제는 9.3%(50명), 각성제 3.2%(17명), 변비약 22.4%(120명)가 약품 사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품사용자중 전체 사용에 따른 비처방과 처방의 비율을 살펴보면 비처방으로 사용하는 학생은 진통제 88.1%, 소화제 91.7%, 감기약 57.4%, 항생제 58.0%, 각성제 88.2%, 변비약 88.3%로서 감기약과 항생제는 의사의 처방을 받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약품은 자가 처방 투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자가 처방은 내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표 2, 표 3에 약품별 내성과 처방·비처방에 따른 약품별 내성에 대한 조사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병원에서도 항생제의 남용으로 인한 병원감염이 큰 문제화되고 있는데 감기약, 항생제의 비처방 약사용은 학생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항생제는 그 선택과 사용에 원칙이 없으면 균의 내성이 생겨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며 변비약의 자가처방 투약도 약 자체가 변비의 원인이 되거나 장운동의 손상 및 장의 정상적인 기능장애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자가 처방은 위험할 수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신완균등, 1995).

상담자의 학년별 비교를 보면 부모는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전문인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늘어가는 경향을 띠고 있다. 이러한 학년에 따른 상담자의 차이는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어려울 때 상담하고 싶은 사람이 친구가 57.5%, 부모 17.0%, 선생님 5.8%라는 M지역 중,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약물남용 실태를 파악한 은종영, 박충선(1997)의 연구에서 보여지는 결과처럼 청소년기는 부모로부터 점점 거리를 두는 시기이며 각종 매스컴이나 교육의 영향으로 인해 전문인 상담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표 1. 학년별 사용 약품별 처방 비율(%)

약 품	1 학년			2 학년			3 학년			계		
	비 처방	처방	계 (명)	비 처방	처방	계 (명)	비 처방	처방	계 (명)	비 처방	처방	계 (명)
진통제	86.7	13.3	100.0 (98)	82.5	17.5	100.0(120)	96.7	3.3	100.0 (92)	88.1	11.9	100.0 (310)
소화제	91.9	8.1	100.0(136)	89.4	10.6	100.0(142)	94.1	5.9	100.0(119)	91.7	8.3	100.0 (397)
감기약	57.3	42.7	100.0(164)	52.3	47.7	100.0(155)	63.2	36.8	100.0(136)	57.4	42.6	100.0 (455)
항생제	72.2	27.8	100.0 (18)	31.2	68.8	100.0 (16)	68.8	31.2	100.0 (16)	58.0	42.0	100.0 (50)
각성제	85.7	14.3	100.0 (7)	100.0	0.0	100.0 (8)	50.0	50.0	100.0 (2)	88.2	11.8	100.0 (17)
변비약	81.3	18.7	100.0 (32)	91.7	8.3	100.0 (48)	90.0	10.0	100.0 (40)	88.3	11.7	100.0 (120)
계	76.7	23.3	100.0(455)	74.5	25.5	100.0(490)	82.7	17.3	100.0(405)	77.7	22.3	100.0(1350)

표 2. 학년별 약품별 내성

약 품	1학년		2학년		3학년		전체	
	명	%	명	%	명	%	명	%
소화제	4	12.1	3	6.7	1	2.1	8	6.3
항생제	0	-	0	-	0	-	0	-
변비약	7	21.2	7	15.6	9	18.8	23	18.3
진통제	15	45.5	20	44.4	28	58.3	63	50.0
감기약	6	18.2	13	28.9	10	20.8	29	23.0
각성제	1	3.0	2	4.4	0	0.0	3	2.4
계	33	100.0	45	100.0	48	100.0	126	100.0

하지만 아직도 독립의 욕구가 있으나 현실에 서는 독립을 할 수 없는 청소년기의 특성을 반영하기라도 하듯이 부모의 영향력은 다른 것보다 큰 것으로 보이는데, 부모와의 대화가 단절되거나 부모와 상담이 이루어 질 수 없는 청소년들의 약물 남용이나 청소년 문제는 피할 수 없는 사회문제가 될 것이다.

조사대상자에게 약품을 사용할 때 증상의 경 중없이 약을 선호하는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약품을 복용하고자 할 때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약을 복용하는지, 참는지, 의사의 진찰을 받은 후 약을 복용하는지에 대한 약품 복용방법에 대한 질문에서는 참다가 증상이 심하면 약을 복용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61.2%, 참는편으로 약은 거의 복용하지 않는다가 29.3%로 나타났지만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약을 복용한다고 응답한 학생도 7.3%에 달해 청소년의 약품 남용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의사에게 진찰을 받은 후 필요시 복용하는 학생은 2.2%에 불과해서 여러 가지 원인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아직도 일반 의약품은 대부분 의사의 처방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태이다.

'참는 편으로 약은 거의 복용하지 않는다', '참다가 증상이 심하면 약을 복용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90.5%에 달하는데 학생들의 약사용의 잘못된 지식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필요시 적절한 방법으로 약을 사용할 수 있으나 절대 안된다는 약사용에 대한 극단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어 올바른 약 사용에 대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약품의 사용정도를 묻는 설문에서 거의 매일, 1주일에 3~4회 약을 사용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27명(5.0%)이며 1주일에 1~2회 약을 사용하는 학생은 77명(14.4%)으로서 1주일에 1회 이상 약품 사용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104명(19.4%)에 달해 학생들의 약품 남용성의 가능성이 큼을 시사하고 있다. 자주 사용하는 약품은 소화제, 감기약 순이며 가끔 사용은 소화제, 진통제, 감기약 순으로 약품간에는 큰 차이는 없었다.

약을 처음 복용했을 때보다 더 많은 양을 복용해야만 효과가 있는 약이 있습니까라는 약의

표 3. 처방·비처방에 따른 약품별 내성

약 품	처 방		비 처 방	
	명	%	명	%
소화제	0	-	8(2)	7.1
항생제	0	-	0	-
변비약	2	14.3	21(3)	18.8
진통제	2	14.3	61(19)	54.4
감기약	10	71.4	19(3)	17.0
각성제	0	-	3	2.7
계	14	100.0	112(27)	100.0

* ()의 숫자는 휴대하고 있는 학생수임.

내성에 대한 설문에서는 내성을 경험한 학생은 126명으로 전체 대상자 536명에 대하여 23.5%에 해당하며 처방하여 복용한 학생 중 11.1%(14명), 비처방으로 복용한 학생 중 88.9%(112명)가 내성을 경험하였다.

처방하여 복용한 약품중 감기약(71.4%), 비처방으로 복용한 약품중 진통제(54.4%)가 가장 많은 내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에 대한 내성이란 약의 반복투여로 그 약에 대한 생체의 반응이 감약하고 같은 반응을 얻기 위하여 용량을 증가시켜야 할 때, 생체는 그 약에 대해 내성이 생겼다고 한다. 또한 126명 중 27명(21.4%)의 학생이 약을 휴대하고 있었으며 진통제가 19명(15.1%)로 가장 많았다.

표 2, 표 3의 약품별 내성과 처방·비처방에 따른 약품별 내성에서는 항생제에 대해 내성을 경험한 학생은 한명도 없었다. 그러나 항생제에 대한 내성을 경험한 학생이 없다는 것은 그러한 내성을 경험하지 못함으로 인해 약을 더욱 남용할 우려가 있다는 의미도 된다. 항생제란 약의 사용효과가 단 시간내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므로 약을 더 많이 남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나 내성을 경험한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항생제 사용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약없이 약을 남용하게 됨으로 인해 2차 감염의 우려도 낳을 수 있다.

신경성 질환이란 병원에서 신경성이라는 진단을 받은 적이 있거나 신경성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약을 복용한 경험이 있는 학생수를 의미하는데 전체 536명중 32.3%에 해당하는 173명으로 약을 복용할 때만 증상의 개선이 있을 뿐 평상시 학교 생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없으며 눈앞의 증상을 개선할 목적으로 약을 찾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신경성 질환은 주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야 하는데 현재의 학생들의 생활이라는 것이 그럴 수 없다는 것도 문제지만 신경성 질환으로 인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성인병으로 남아 국민의 건강을 저해할 우려가 많다. 32.3%라는 수치의 의미는 조

사대상 학교의 고등학교 학급당 15명 정도가 신경성 질환을 앓고 있거나 앓은 병력이 있다는 의미가 된다.

표 4. 신경성질환 이환실태

학년	명	%
1	53	30.6
2	62	35.8
3	58	33.5
계	173	100.0

2. 여고생의 심리적 특성

표 4에 제시된 반응유목은 설문에서 조사된 항목인 「전혀없다」, 「약간있다」, 「웬만큼있다」, 「꽤 심하다」, 「아주 심하다」에 각각 0점, 1점, 2점, 3점, 4점을 주고 각 증상차원별로 합한 다음에 평균을 구하여 1.49이하를 「없음」, 1.5점에서 2.49점을 「약간 있음」, 2.5점에서 3.49점사이는 「웬만큼 있음」, 3.5점 이상을 「심함」으로 다시 항목화하였다.

이 조사에서 우울증 차원의 경우 웬만큼있음이 15.5%, 심함 2.6%로 우울증 차원이 18.1%로서 가장 심하였고 그 다음으로 증상이 심한 차원은 강박증, 정신증, 불안이다.

이 결과는 김범준(1987)의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와 유사하지만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김광일(1984)의 연구에 비해 우울, 불안증상이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나 본 조사대상자인 인문계 여고생의 심리적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김광일 연구는 SCL-90-R의 표준화를 위해 시행된 연구로 간이정신진단검사의 규준집단 및 연구로 이용되고 있다. 본 연구대상자의 심리적 특성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결과와 김광일 연구결과를 비교해보면 대인예민성을 제외하고 모든 차원에서 본 연구집단이 김광일 연구집단보다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우울, 정신

표 5. 간이 정신진단검사의 증상차원별 피험자 분포

증상차원	없음 (1.49 이하)	약간 있음 (1.5~2.49)	웬만큼 있음 (2.5~3.49)	심함 (3.5 이상)	계
신체화	392(73.1)	123(22.9)	20(3.7)	1(0.2)	536(100)
강박증	316(59.0)	182(34.0)	37(6.9)	1(0.2)	536(100)
대인예민성	356(66.4)	156(29.1)	23(4.3)	1(0.2)	536(100)
우울	248(46.3)	191(35.6)	83(15.5)	14(2.6)	536(100)
불안	361(67.4)	144(26.9)	27(5.0)	4(0.7)	536(100)
적대감	396(73.9)	115(21.5)	24(4.5)	1(0.2)	536(100)
공포불안	455(84.9)	70(13.1)	10(1.9)	1(0.2)	536(100)
편집증	415(77.4)	102(19.0)	17(3.2)	2(0.4)	536(100)
정신증	370(69.0)	132(24.6)	33(6.2)	1(0.2)	536(100)
전체심도지수	413(77.1)	116(21.6)	7(1.3)	0(0.0)	536(100)

※전체심도지수(GSI) : 각 문항에서 1점 이상에 평정한 점수의 합계(grand total)를 총문항수로 나눈 점수로 현재의 장애 수준 또는 심도를 나타낸다. 이 GSI로서 개인의 일반적인 심리적 고통(psychological distress)의 정도를 알아볼 수 있다.

증, 불안이 비교집단보다 훨씬 점수가 높았다. 두 집단간의 점수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김광일의 연구는 일반적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이기 때문에 인문계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인문계의 입시체제 아래 있는 학생들의 정신건강상태가 더 좋지 않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3. 약물 사용과 심리적 특성

약물의 사용에 따른 간이정신진단검사의 결과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조사대상자를 약물 미사용자, 3종류미만의 약물 사용자와 3종류이상의 약물 사용자로 나누어서 증상차원별 간이정신진단검사결과를 살펴보았다. 전체 조사대상자중 약물 미사용자는 28명(5.2%), 3종류미만의 약물 사용자는 228명으로 42.5%, 3종류 이상의 약물 사용자는 280명 52.2%로서 1종류의 약품이라도 사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94.8%에 이른다.

약물의 미사용자와 3종류 미만의 약품사용자, 3종류 이상의 약품사용자의 증상차원별 간이정신진단검사는 공포불안, 편집증을 제외하고는 모

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신체화, 불안의 증상이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고 적대감, 강박증, 불안이 그 다음 순이었다.

조사대상자의 약물 사용과 심리상태를 살펴보면 항생제, 진통제, 각성제는 약물 사용자와 미사용자의 정신진단검사상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지만 소화제, 변비약, 감기약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진통제, 항생제, 각성제는 일반의약품으로 일반 매약에 속하지만 내성, 남용의 가능성이 있는 약품이다. 이러한 약의 사용자와 미사용자의 심리적 상태는 표 8에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중추신경흥분제인 각성제와 제 3, 4의 질병을 유발하며 그 습관성으로 인하여 복용하지 않는 것 자체가 머리를 아프게 할 수 있는 진통제(진태원, 1998), 향정신성 매약에 속하는 감기약(데이비드 던컨, 1991)은 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 즉 향정신성 약품이다. 표 7의 학생들의 진통제, 각성제에 대한 심리적 상태와 표 8, 표 9, 표 10의 진통제, 감기약, 각성제의 사용자 미사용자의 간이정신진단검사 결과는 진태원(1998)의 비판적이고 침체된 심리적 성향을 가진 청소년일

표 6. 약물사용과 간이정신진단검사의 차이검증

증상차원	미사용자		3종류미만		3종류 이상		F	p - value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신체화	0.85	0.72	0.88	0.69	1.14	0.67	9.85	0.0001***
강박증	0.92	0.64	1.38	0.74	1.41	0.69	6.44	0.0017**
대인예민성	1.00	0.72	1.14	0.64	1.27	0.65	3.97	0.0195*
우울	1.09	0.82	1.46	0.83	1.66	0.86	7.72	0.0005***
불안	1.02	0.75	1.11	0.73	1.29	0.77	4.96	0.0073**
적대감	0.77	0.58	0.91	0.69	1.11	0.73	6.87	0.0011**
공포불안	0.68	0.63	0.60	0.64	0.73	0.69	2.55	0.0792
편집증	0.68	0.66	0.80	0.71	0.89	0.72	1.96	0.1416
정신증	0.87	0.70	0.99	0.74	1.16	0.78	4.40	0.0128*
GSI	0.90	0.58	1.03	0.57	1.19	0.56	6.16	0.0023**

*p<.05 **p<.01 ***p<.001

표 7. 약물별 약물사용과 심리적 상태

약 품	SCL - 90 - L		t	p - value
	검사 점수 (GSI)			
	약 품 미사용자	약 품 사용자		
소화제	1.04(0.59)	1.12(0.57)	-1.3087	0.1913
항생제	1.08(0.57)	1.27(0.55)	-2.1051	0.0358
변비약	1.08(0.57)	1.17(0.58)	-1.4671	0.1430
진통제	1.03(0.58)	1.16(0.56)	-2.4279	0.0156*
감기약	1.01(0.61)	1.12(0.56)	-1.3793	0.1684
각성제	1.09(0.56)	1.48(0.69)	-2.8821	0.0041

*p<.05 **p<.01

수록 약물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내용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므로 일선에서 이러한 약에 대한 사용과 위험성에 대한 철저하고 체계적인 교육과 함께 정부차원의 사용에 대한 관리와 규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진통제의 경우 신체화, 우울, 불안, 정신증, 적대감등에서 약물 사용자와 미사용자의 간이정신진단검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전체심도지수상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감기약은 약물사용자와 미사용자를 나누지 않고 약물사용량에 따른 정신진단검사결과를 살펴 보면 표 9와 같다. 감기약의 약물 사용자는 사용 회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심도지수상으로 볼 때 정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강박증, 대인예민성을 제외한 모든 증상차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각성제는 전체심도지수상으로 볼 때 정신건강상태가 좋지 않음을 나타내 주고 있으며 신체화, 불안, 적대감, 정신증의 증상차원에서 약물 사용자와 미사용자의 간이정신진단검사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표 8. 진통제 사용자와 미사용자의 간이정신진단검사 결과

증상차원	약품 미사용자		약품 사용자		t	p - value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신체화	0.88	0.69	1.10	0.68	-3.7000	0.0002***
강박증	1.34	0.76	1.38	0.68	-0.7223	0.4704
대인예민성	1.15	0.65	1.23	0.64	-1.4304	0.1532
우울	1.37	0.82	1.66	0.85	-3.8810	0.0001***
불안	1.07	0.73	1.28	0.76	-3.1708	0.0016**
적대감	0.92	0.69	1.06	0.72	-2.2274	0.0263*
공포불안	0.62	0.65	0.71	0.67	-1.5920	0.1120
편집증	0.78	0.70	0.88	0.72	-1.7480	0.0810
정신증	0.96	0.71	1.14	0.78	-2.7777	0.0057**
GSI	1.03	0.58	1.16	0.56	-2.4279	0.0156*

*p<.05 **p<.01

표 9. 감기약 사용량에 따른 간이 정신진단검사 결과

증상차원	매일사용		3~4회/주		1~2회/주		1~2회/월		1~2회/년		F	p - value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신체화	1.04	0.45	2.83	.	1.04	0.72	1.31	0.77	0.94	0.64	6.92	0.0001***
강박증	1.50	0.52	3.00	.	1.54	0.77	1.47	0.65	1.36	0.71	1.97	0.0981
대인예민성	0.81	0.16	2.87	.	1.22	0.55	1.25	0.59	1.20	0.65	2.17	0.0713
우울	2.00	1.13	3.50	.	1.42	0.87	1.79	0.91	1.51	0.81	3.70	0.0056**
불안신경증	1.70	1.36	3.40	.	1.32	0.82	1.34	0.73	1.16	0.73	3.70	0.0057**
적대감	0.66	0.78	2.66	.	1.05	0	1.17	0.79	0.98	0.68	2.83	0.0245*
공포불안	0.12	0.14	2.50	.	0.58	.84	0.78	0.66	0.65	0.66	3.49	0.0081**
편집증	0.81	0.42	3.50	.	0.84	0.53	0.98	0.76	0.79	0.68	4.91	0.0007***
정신증	1.12	0.62	3.50	.	1.10	0.54	1.31	0.81	1.01	0.73	5.36	0.0003***
GSI	1.08	0.51	3.06	.	1.03	0.77	1.26	0.55	1.08	0.55	4.79	0.0009***
						0.55						

*p<.05 **p<.01 ***p<.001

표 10. 각성제 미사용자와 사용자의 간이정신진단검사 결과

증상차원	약품 미사용자		약품 사용자		t	p - value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신체화	0.99	0.69	1.50	0.75	-3.1761	0.0016**
강박증	1.36	0.71	1.48	0.74	-0.7149	0.4750
대인예민성	1.19	0.65	1.40	0.71	-1.3525	0.1768
우울	1.52	0.84	2.03	1.09	-2.5776	0.0102
불안	1.18	0.74	1.66	0.89	-2.6735	0.0077**
적대감	0.99	0.70	1.45	0.87	-2.7927	0.0054**
공포불안	0.66	0.66	0.85	0.75	-1.2086	0.2274
편집증	0.83	0.70	1.03	0.85	-1.2178	0.2238
정신증	1.05	0.75	1.47	0.92	-2.3659	0.0183*
GSI	1.09	0.56	1.48	0.69	-2.8821	0.0041**

*p<.05 **p<.01

IV. 결론 및 제언

1. 결론

가. 여고생의 일반 약품 사용 실태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연구 대상자중 94.8%가 1종류이상의 약품 사용경험이 있었으며 진통제는 57.8%, 소화제 74.1%, 감기약 84.9%, 항생제 9.3%, 각성제 3.2%, 변비약 22.4%의 사용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2) 약품사용자중 진통제 88.1%, 소화제 91.7%, 감기약 57.4%, 항생제 58.0%, 각성제 88.2%, 변비약 88.3%가 비처방으로 약품을 사용하였다.

3) 약품을 사용하기전 최초로 상담하는 사람은 부모가 59.9%, 전문인 24.4%, 스스로 15.7%로서 부모가 가장 많은 비중을 갖고 있었고 학년에 따라 부모에게 상담한다고 응답한 학생은 줄어든 반면 전문인에게 상담하는 학생은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는데 학년별 상담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1$).

4) 신체의 통증이나 불편감이 있을 때 약품의 복용은 어떻게 하느냐는 문항에서는 참다가 증상이 심하면 약을 복용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61.2%, 참는 편으로 약은 거의 복용하지 않는다

가 29.3%로 나타났다.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약을 복용한다고 응답한 학생은 7.3%, 의사에게 진찰을 받은 후 필요시 복용하는 학생은 2.2%로 나타났다.

5) 조사대상자중 거의 매일, 1주일에 3~4회 약을 사용한다고 응답한 학생은 5.0%, 1주일에 1~2회 약을 사용하는 학생은 14.4%로서 1주일에 1회 이상 약품 사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19.4%에 달하며 자주 사용하는 약품은 소화제, 감기약 순이었다.

6) 약에 대한 내성을 경험한 학생은 23.5%이며 처방하여 복용한 학생중 11.1%, 비처방으로 약을 복용한 학생중 88.9%가 내성을 경험하였다. 또한 내성 경험학생의 21.4%가 약을 휴대하고 있었고 휴대약 중 진통제가 15.1%로 가장 많았다.

7) 신경성으로 인해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적이 있거나 신경성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약을 복용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32.3%로서 현재 고등학교 학급수에 대한 비율로 볼 때 학급당 15명 정도가 된다.

나. 여고생의 일반 약품사용과 심리적 특성에 대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간이 정신진단검사를 통한 연구 집단의 심

리적 상태를 보면 우울증 차원이 가장 심하고 (18.1%) 그 다음으로 강박증, 정신증, 불안 순이었다.

2) 전체심도지수상으로 볼 때 조사대상학생들은 간이정신진단검사 기준집단인 김광일 연구집단보다 높았고 두 집단간의 점수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세부 증상차원별로는 대인예민성을 제외하고 모든 차원에서 본 연구집단이 비교집단보다 점수가 높게 나타났는데 우울, 정신증, 불안이 비교집단보다 훨씬 더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3) 약품의 미사용자와 3종류 미만의 약품 사용자, 3종류 이상의 약품 사용자의 증상차원별 간이정신진단검사는 공포불안, 편집증을 제외하고 모든 증상차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신체화, 불안의 증상이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대감, 강박증, 불안순으로 높았다.

4) 약품 사용과 심리상태에서 항생제, 진통제, 각성제는 약품사용자와 미사용자의 간이정신진단검사상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소화제, 변비약, 감기약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5) 진통제는 신체화, 우울, 불안, 정신증, 적대감에서 약품 사용자와 미사용자의 간이정신진단검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감기약의 약품 사용자는 약품 사용회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각성제는 신체화, 불안, 적대감, 정신증의 증상차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2.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약품관리와 보건교육에 대한 기초자료 제공에 도움이 되고자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가. 학생들의 향정신성 약물에 대한 실태와 관련요인분석에 대한 연구이외에 일반 의약품에 대한 실태와 관련요인에 대한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의약품업이 되면 지

금보다 더 일반 의약품은 남용될 수 있는데 그런 일반 의약품들이 청소년들을 약물 오·남용으로 이끄는 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의약품업이 된다고 해도 청소년들에 대한 일반 의약품 사용에 대한 규제 방침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나. 약물 오·남용 교육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정규 수업교과가 없기 때문에 그 실태는 형식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향정신성 약물을 포함한 일반 의약품의 선택, 복용, 그 피해나 부작용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보건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매스컴에서 사건이 일어난 후에 학교 현장에 교육을 실시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부터 학교의 교과속에 지속적으로 체계적이고 자연스러운 교육이 필요하다.

다. 입시로 인한 청소년 문제나 친구, 이성, 성문제등 청소년 문제는 많은 부분이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학교는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학교에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분야의 담당자와 전문가는 전무한 실정이며 학생들 개개인이 학부모 손에 끌려 정신과 전문의를 찾고 있지만 학교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지도 파악되어 있지 않다.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학생들의 정신건강 실태에 대한 진단과 정신건강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지만 기존 지역사회의 기관들도 전문상담자나 전문가 배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기의 정신건강 분야에 대한 연구와 함께 학교 상담실과 지역사회정신보건을 위한 기관설치, 전문가배치등의 투자, 학교와 지역사회기관의 보다 체계적인 연계가 필요하다.

라. 기존의 선행연구들도 약물 오·남용의 실태와 관련요인에 대한 연구가 있지만 많은 부분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실태파악도 중요하지만 청소년들이 향정신성 약물이든 일반의약품

이든 그것에 의존하는 요인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여 약물을 오·남용하지 말라는 형식적인 보건교육이 아니라 그 원인에 따라 실정에 맞는 보건교육이나 약물 관리, 약물 오·남용 예방, 청소년의 갈등해소를 위한 지침 나아가 청소년의 사회문제를 위한 대책이나 관리를 청소년의 입장에 서서 실시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문제 발생시 대책위주로 시행하는 현 체계에서 벗어나 전문가에 의해 연구를 하고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는 약물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1. 김광일 외, 「간이정신진단검사 실시요강」, 중앙적성연구소 (1989)
2. 데이비드 던컨·로버트폴드 저 (김춘미 역), 「약과 인간」,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1991)
3.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원, 「약물 오남용 예방 자료」, (1988)
4. 신완균 외, 「처방조제와 복약지도」, 서울 : 서울대학교출판부 (1995)
5. 이동식, 「한국인의 주체성과 도」, 서울 : 일지사(1975)
6. 이인혜, 「현대인의 정신건강」 대왕사 (1999)
7. 이재창, 「청소년의 종합 진단 연구」, 서울 한국교육 개발원(1981)
8. 정원근, 「약과 건강」,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1995)
9. 진태원, 「청소년의 약물남용」, 중등과학교사 연수교재(1998)
10. 최윤미외, 「현대청년심리학」, 학문사(1998)
11. Harold D., 「Youth and the drug problem」, Charles C Thomas · Publisher, (1971)
12. Marion B.Pollock, Kathleen Middleton, 「School Health Instruction - the elementary & Middle School Years : chapter 17」, Mosby(1994)
13. Stephen J. Bender, James J. Neutwns, Selene Skonie - Hardin, Walter D. Sorochan, 「Teaching Health Science -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4th ed., Jones and Bartlett Publishers(1997)
14. 권인숙, “보건교육 방법별 접근이 여고생의 약물사용 지식 및 태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1991)
15. 고태용, “청소년의 약물남용과 가정의 심리적 환경 및 불안변인과의 관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목포대학교 대학원(1996)
16. 김명희, “부산시내 여고생들의 월경에 대한 태도와 진통제 복용에 관한 연구”, 중앙의학 ; 42(3) : 233 - 240
17. 김범준, “대학 신입생의 정신건강실태와 그 영향변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심리학과(1987)
18. 김성운, “약물복용과 성격장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1988)
19. 김성이, “청소년의 약물 남용의 실태”, 적십자 심포지엄 보고서, 대한적십자사, (1988)
20. 김숙경, “청소년의 약물 사용과 비행실태”,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1992)
21. 김우정, “비행 청소년과 정상 청소년의 정신건강상태와 대응능력 및 사회적 지지에 대한 비교 연구, 석사학위 논문,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1996)
22. 김정영, “의약품의 OTC 유통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경영대학원(1995)
23. 김헌수 외 4인, “청소년과 약물 문제”, 중앙의대지, 1988 ; 13(3) : 605 - 613
24. 김효숙, “보건교육이 국민학생의 약물 사용에 대한 지식 및 태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1993)
25. 남중락, “고등학교학생의 약물남용 실태와 관련요인”,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보건대학원(1995)
26. 노명옥,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의 상태불안이 신체·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이화대학교 대학원(1985)

27. 민재성, 박재용, “의약분업의 기대효과와 제약요인”, 한국개발연구원 ; 4(4) : 127 - 148(1982)
28. 박두병 외 2인, “한국 청소년의 정신활성물질 장애에 관한 역사적 고찰”, 한국의과학 ; 21(1) : 15 - 26(1989)
29. 박영숙, “고등학교 학생들의 약물 사용에 대한 지식 정도와 교육요구도에 대한 조사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1991)
30. 박중규, “약물 사용 청소년의 심리 및 사회적 특성”,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88)
31. 송금순, “양호실을 통하여 사용된 질환별 의약품에 대한 조사연구”, 한림전문대학 논문집 제26호(1996)
32. 신현정, “중학생의 약물 사용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1996)
33. 오국진, “약국 이용자의 약물 사용에 관한 행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1994)
34. 옥우연, “초등학교 학생들의 약물 사용에 대한 지식 및 태도 조사 연구”, 석사학위 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1997)
35. 유방현, “항생제의 남용, 오용에 따른 부작용, 특히 간상해에 대하여”, 대한의학협회지 ; 24(3) : 235 - 238(1981)
36. 은종영 · 박충선, “청소년의 약물 남용 실태에 관한 연구”, 대한보건협회지 제23권 제2호(1997)
37. 이길홍, 민병근, “한국청소년의 담배 흡연율,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정신과학교실 (1976)
38. 이길홍, 민병근, “한국청소년의 담배 흡연양상”,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정신과학교실(1979)
39. 이길홍, 민병근, “한국청소년의 음주 빈도 및 음주양상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1979)
40. 이길홍, 박두병, 민병근, “한국청소년의 음주양상과 공격성과의 상호관계”, 중앙대학교 의학대학회지 ; 9(4) : 583 - 603(1984)
41. 이길홍, 이근철, 민병근, “알코올 음주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 분석”, 신경정신의학 ; 26(2) : 334 - 348 (1988)
42. 이명숙, “전문대 학생의 약물사용에 관한 연구”, 중앙의학 ; 54(9) : 687 - 696(1989)
43. 이문자, “서울시내 일부 남녀 중, 고등학생들의 습관성 약물사용 실태 조사”,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1981)
44. 이숙련, “부산시내 중·고등학생의 약물에 대한 태도와 남용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환경대학원(1995)
45. 이재창, “한국 청소년의 의식구조, 청소년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심포지엄)”, 한국심리학회(1985)
46. 이정균, “습관성 약물 중독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 9(2) : 105 - 113 (1970)
47. 이정상, “항생제의 부작용”, 대한의학협회지 ; 24(3) : 229 - 234(1981)
48. 이정우, “서울시내 일개 여자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약물 사용에 관한 조사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1980)
49. 이화자, “부산시내 고등학생의 각성제 복용 실태에 관한 연구”, 부산의대잡지 ; 21(2) : 455 - 463(1981)
50. 전영희, “청소년의 상태불안과 정신건강과의 관계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1988)
51. 정승아, “일부 중·고등학생들의 약물남용과 불안 및 우울성향과의 관계 분석”,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1993)
52. 정영남, “여고생의 자아개념과 정신건강과의 관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1990)
53. 정희숙, “청소년들의 약물사용 실태에 관한 문헌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1991)
54. 조연숙, “고등학생의 약물 남용 실태”,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보건대학원(1989)

55. 주왕기, “청소년의 약물 남용 현황”, 보건소 식, 1989 ; 3/4 : 6 - 6
56. 최순영, “고등학교 여학생의 약물남용실태와 약물교육요구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1996)
57. 최연아, “일부 고등학교 학생들의 약물 사용 실태 조사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1988)
58. 최은영, “청소년 약물 오 · 남용 예방을 위한 학교보건교육 현황조사”,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1993)
59. 최 현, “고등학교 학생의 약물 오 · 남용실태 및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1991)
60. 한성욱, “한국군의 약물 남용 실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1990)
61. 한정석, “청소년의 상습 약물 복용”, 월간소비자 ; 10 : 40 - 46(1985)
62. 한표국, “의약품 오 · 남용 실태 조사”, 소비자 시대; 6 : 64 - 69(1991)
63. 홍성희, “청소년 약물사용 실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1991)
64. 홍정임, “약물 복용 가능 아동의 가정환경 특성에 관한 분석적 연구”, 석사학위 논문,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1996)
65. Anne H. Sheetz, Margaret S. Blum, “Medication Administration in School : The Massachusetts Experience”, Journal of School Health(Vol.68, No.3)(1998)
66. Bell D.S., Champion R.A. Deviancy, delinquency and drug use. Br J Psychiatry ; 134 : 269 - 276(1979)
67. David R. Black, Nancy S. Tobler, John P. Sciacca, “Peer Helping/Involvement : An Efficacious Way to Meet the Challenge of Reducing Alcohol, Tobacco, and other Drug Use Among Youth?”, Journal of School Health(Vol. 68, No.3)(1998)
68. Gordon B. Lindsay, Jacquie Rainey, “Psychosocial and Pharmacologic Explanations of Nicotine’s ‘gateway Drug’ Function”, Journal of School Health(Vol. 67, No.4)(1997)
69. Hamburg B. A., Varenhorst B. Peer counselling in the Secondary Schools. Am J Orthopsychiat. ; 42 : 566 - 581(1972)
70. Linda Dusenbury, Mathea Falco, Antonia Lake, “A Review of the Evaluation of 47 Drug Abuse Prevention Curricula Available Nationally”, Journal of School Health (Vol. 67, No.4)(1997)
71. L.Schmidt, C.Weisner, and J.Wiley, “Substance Abuse and the Course of Welfare Dependency”,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1998)
72. Simond J. F. and Kashani J., Drug abuse and criminal behavior in delinquent boys committes to training school. Am J Psychiatry. ; 136 : 1444 - 1448(1979)